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호 [루게 제23339호] 주체100 (2011)년 1월 22일 (토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룡해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원일동지, 사리원시당 책임비서 양명철동지를 비롯한 도와시, 공장들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어버이장군님을 맞이한 사리원시는 이날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올해에 경공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사리원시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11월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임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해설을 들으신 다음 파자, 사탕, 국수, 빵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곳을 보시면서 기술장비 및 생산설비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은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한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도자체의 설비들로 장비된 자력경쟁의 공장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공장, 기업소들



에서 만든 현대적인 식료가공설비들이 즐비하게 늘어난 아담하고 정결한 작업장에서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각종 식료품들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파자의 맛까지 헤아려보시면서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특정한 토대를 마련한 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동력으로 부른 김철의 호소에 화답하여 치열한 돌격전을 벌임으로써 날에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일꾼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부닥치

는 에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이악하게 투쟁할 때 현 조건에서도 인민들에게 더 많은 복락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내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서 정방산종합식료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경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생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원료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자는것이 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식료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원료와 자재의 재질과 순도, 규격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보장하며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는 엄격한 규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을 만부하로 돌리자면 기술관리, 설비관리에 큰 힘을 넣으며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보

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는것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정방산종합식료공장에서는 이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조직지휘하는데서 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종업원들이 높은 애민정신을 가지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식료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리원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초식품공장을 현대화하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식품들을 더 많이 공급할 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심장에 받아안고 결사판철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기술개건사업을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냈을뿐 아니라 생산을 정상화하여 시민들의 식생활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간장작업반, 기름작업반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갖가지 기초식품들이 쏟아져나오는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모든 생산공정들을 과학 기술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최근년간 도처에 현대적인 기초식품 공장들이 수없이 건설되어 지금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미 건설된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면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초식품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인민의 총복인 우리 일꾼들은 이 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초식품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기본열외는 원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협동농장들에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세밀히 짜고들어 더 많은 원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초식품은 누구나 다 먹는 식품인것만큼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기술지표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생산공정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초식품공장들은 인민들이 먹을 식료품을 다루는것만큼 이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임무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안고 아글라글 노력하며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공장의 위생환경에도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은 여러가지 남새들을 가지고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널리 만들어먹는 전통음식의 하나인

장절임을 비롯한 부식물들을 생산하는 식료가공기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합의 장절임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대를마다에서 쏟아져나오는 먹음직스러운 장절임들을 보시고 생산자들이 뜨거운 애민정신을 발휘하여 여러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장절임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다 즐겨 만들어먹는 대중식료품인 동시에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농토산물을 가지고 얼마 품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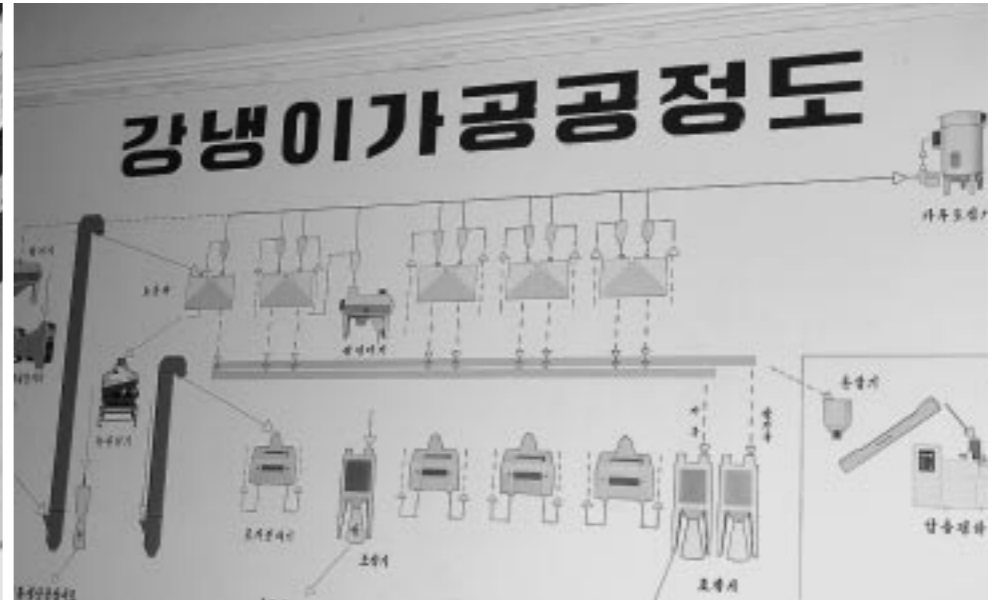
만들수 있다고 하시면서 협동조합에서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살려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부식물들을 질 좋게 생산하기 위한 경영활동을 더욱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장절임을 비롯한 부식물들을 많이 생산하는것은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생산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안고 생산에서 더 큰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사리원시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새해의 보람찬 전투를 몸소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시에 찾아오시여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 주시며 비약의 한길로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인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단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리원시의 식료공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봉해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현대적으로 건설된 인민학습당에 모시고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정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도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직접적발기와 은정어린 조치에 따라 사리원시의 중심구역에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은 목욕객색으로부터 도서 및 자료열람, 강의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와 망체계에 의하여 진행되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이다.

연건축면적이 4,500여㎡에 달하고 수십만부의 장서능력과 500여석의 독자수용능력, 방대한 량의 자료기지를 가지고있으며 최첨단정보기술 체계에 의거하여 과학기술현장봉사와 인민대학습당과의 원격강의도 할수 있고 군도서관들과의 망체계가 구비되어있는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은 우리의 지적잠재력의 위력을 파시하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내 인민들에게 훌륭한 과학기술지식보급기지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여러차례 귀중한 가르치심과 건설에서 걸린 문제까지 몸소 풀어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할 일념을 안고 혁명적근인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방대한 건설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끝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황해북도에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인민학습당이 건설되어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도안의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과학기술보급의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인민학습당이 일떠선 결과 독자들이 앉은자리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마음껏 찾아보고 강의를 받으며 폭넓은 지식의 탐을 쌓아갈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원격강의실, 전자열람실을 비롯한 학습당의 내부와 외부로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상태, 관리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은 설계도

잘되고 시공의 질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 아니라 모든 설비들이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이 그로연모 리상사회의 면모가 반영되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학습당을 도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 운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미감과 건축학적요구에 맞게 건설된 학습당의 모든 건축요소들마다에는 건설자들의 뜨거운 지성과 조국애가 깃들여있다고 하시면서 자기 손으로 제땅에 살기 좋은 인민의 지상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는 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훌륭히 꾸려진 황해북도인민 학습당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창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게 된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므로 우리 당은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제시 하였으며 인민들에게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일이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도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인민학습당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성대국건설은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최첨단들과의 포성으로 적들의 과학기술적봉쇄를 짓뭇개버리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누구나 높은 과학기술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배우고 또 배우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술문화혁명수행에서 인민 학습당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리용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근로자들의 문화수준이 높은 단계로 비약하고 그들의 문화적수요도 나날이 높아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발전된 현실에 맞게 황해북도인민 학습당처럼 모든 학습당들을 잘 꾸리고 관리운영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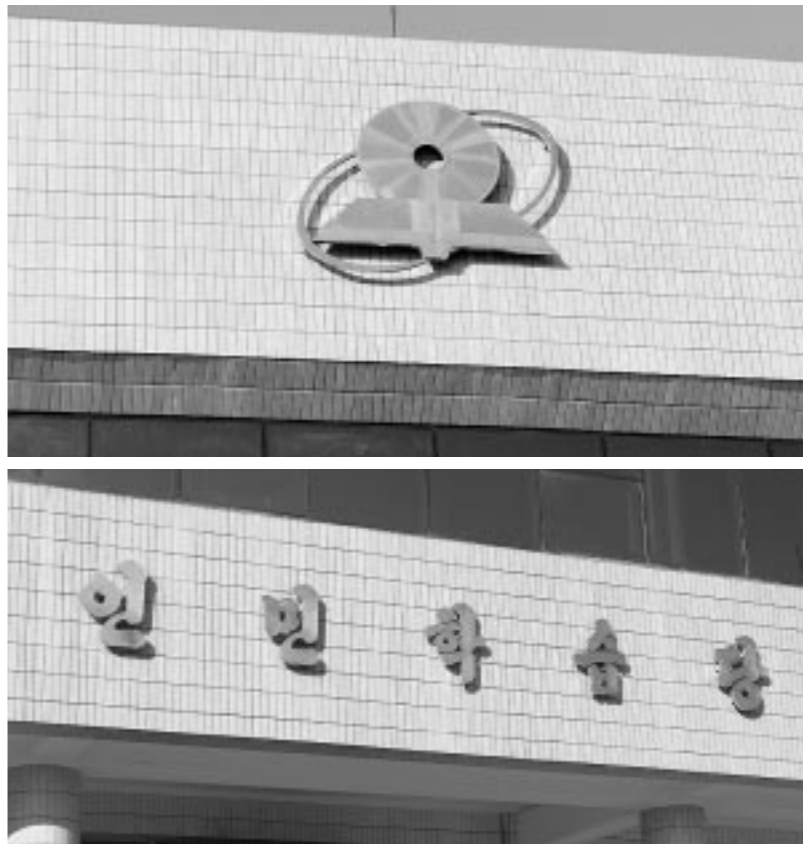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최신과학기술을 원만히 습득시키기 위하여서는 학습당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놓는것과 함께 자료보관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북도인민 학습당에서 운영되고있는 컴퓨터망에 의한 열람은 경제적인뿐 아니라 임의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대 학습당과 군도서관사이의 컴퓨터망봉사를 정상화하여 학습당을 찾아오는 독자들의 요구에 맞게 열람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기술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해방직후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다!》는 구호를 들고 열심히 배워 짧은 기간에 문맹을 퇴치하고 자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한 지혜롭고 총명한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전당이 학습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의 위력을 만천하에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북도인민 학습당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보다 폭넓고 풍부한 지식을 안겨주어 우리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지도본반



여러 나라에서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

2.16경축 민주공고준비위원회 결성이 13일 킨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에는 민주공고 진정한 루뭉바주의애국당, 사회주의인민련합, 로동계시민협회 등 정당, 단체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에서는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민주공고로동계시민협회 위원장 로해켈레 안드레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결성식 주체사상연구 매히꼬전국조정위원회,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년차총회 진행

주체사상연구 매히꼬전국조정위원회는 6일 매히꼬사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는 주체사상연구 매히꼬전국조정위원회, 메히꼬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주체사상연구조사 인사들 그리고 연구소산하 지부책임자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위원회의 지난해 활동정형을 총화하고 올해 주체사상, 선군사상연구보급사업을 보다 적극화하기 위한 대책문제들이 토의되었다. 한편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년차총회가 13일 킨사에서 진행되었다. 총회에는 민주공고주체사상

혁명전설 소덕수의 물방아

군대를 적극 원호하는것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볼레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시위하며 온 나라에 세차게 끓어쳐흐르는 원군의 대하에 몸을 싣느라던 수십년전 소덕수마을에 쉬임없이 울리던 물방아소리가 오늘날도 들려오는듯싶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은 사회에 웅군사상이 차넘치게 하고 원군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있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생겨난 크지 않은 소덕수마을에는 사시정철 마르지 않는 물개울을 리용한 물방아가 있었다. **중-중-** 깊은 산골의 정적을 깨치며 하루종일 호기있게 울리는 소덕수의 물방아소리, 한알의 쌀이라도 유격대에 더 보내자고 그 부근의 마을은 물론 멀리에서 사는 인민들까지 열심을 이고지고 이곳으로 찾아들었다. **【조선중양통신】**

또 올렌데 이 물방아를 없애는 높은 천벌을 받을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라고 이르고 떠났습니다. ... 영문을 알지 못한 대장님은 정신이 나간것처럼 사지를 덜덜 떨더니 감히 물방아는 다치지 못하고 쫓겨들어서 쫓겨 물개울을 이루게 하는 샘을 없애버리고 황황히 소덕수마을을 떠났다. 어느날 깊은 밤, 갑자기 어머선가 싸이-하는 소리와 함께 물방아의 병영에 물사태가 났다. 병영은 산사에 물이 겹겨 온통 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날 밤의 물사태가 물방아의 병영만을 휩쓸었던것이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천지조화를 일으켜 물방아의 샘줄기를 막아버린 놀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그 일이 있는 후부터 소덕수 물방아소리는 유격대를 적국도나선 인민들의 마음을 가득 담고 더더욱 힘있게 울려 퍼졌다. 본사기자 활명희

